

신비한 힘을 지닌 여성들과 현대의 공동체

— 『그리고 마녀는 숲으로 갔다』를 중심으로

안지영(경기대)

1. 서론

산호 작가의 『그리고 마녀는 숲으로 갔다』(『마녀는』)¹⁾는 기후 위기로 식량난에 처한 아포칼립스적 상황을 배경으로 한 그래픽 노블²⁾이다. 1권 출간 이후 한국여성만화가협회가 뽑은 제2회 여성만화가작품상(2024)을 수상하였고,³⁾ 2권으로 완결된 후에는 2025 서울국제도서전 시상식에서 ‘한국에서 가장 재미있는 책’으로 선정되면서 화제를 모았다. “자연에 대한 착취와 여성에 대한 폭력은 그 방식 등의 측면에서 결이 같다는 에코페미니즘의 문제의식에 공감하여 기획”⁴⁾되었다는 책 소개가 설명하듯, 이 작품은 기후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여성주의적으로 풀어냈다는 특징을 지닌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현상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 위기 문제가 자연, 여성, 성 소수자를 비롯 근대 이후 착취당하고 억압받은 비인간 및 인간 존재자들에 대한 폭력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포착해낸 것이다.

다만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에도 에코페미니즘의 문제의식이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작품에 대한 주목은 의외라고 할 만한 부분이 있다.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과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한 2018년 이후의 미투 운동, 2020년 N번방 사건을 거치며 다양한 페미니즘 담론과 의제가 쏟아져 나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흐름이 에코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을 재점화하는 데 기여한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당연한 여성혐오의 현실과 싸워 나가는 과정에서 에코페미니즘에서 주장하는 여성과 생태 문제의 관계성이 상대적으로 해결이 시급한 문제에 밀려 주목받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마녀는』은 이러한 상황에서 에코페미니즘의 문제의식을 대중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작품으로 페미니즘 리부트의 흐름을 생태주의적으로 전환해냈다는 의미를 지닌다.⁵⁾

특히 비인간적 존재와 소통하며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닌 여성들을 ‘마녀’라고 지칭하며 마리아 미즈, 실비아 페데리치, 마리아 로사 달라 코스타 등 에코페미니즘 이론가들이 자본주의 시초 축적의 기원으로 주장하는 마녀사냥의 비극을 상기시키고 있는 점은 주목된다. 마녀사냥에 대한 연구는 대표적 학제간 연구 영역으로 자리 잡았을 정도로 다양한 면모를 지닌 현상이

1) 이 작품은 총 두 권으로 출간되었다. 이후 작품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는 권수와 쪽수만 표시하였다. 산호, 『그리고 마녀는 숲으로 갔다』 1, 고블, 2023; 산호, 『그리고 마녀는 숲으로 갔다』 2, 고블, 2025.

2) 그래픽 노블은 “소설 수준의 긴 분량과 복잡한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는 만화책의 한 형태” 정도로 정의된다. 1978년 미국에서 「신과의 계약」이라는 최초의 그래픽 노블이 발표된 것을 기원으로 하며, 만화(comix)가 그래픽 노블로 진화하며 내러티브의 형식과 내용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시각적으로도 작가주의적 스타일이 확실한 그림체와 질적 완성도가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 김성필, 「시각적 서사물로서 그래픽 노블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조형미디어학』 17-2, 2014.

3) 이 작품은 “사람이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가기 마련이지만, 작중에서 마녀로 대표되는 여성들은 죽으면 더 큰 자연환경이 된다”는 점에서 “여성이 치열하게 삶을, 죽음조차도 살아가는 존재임을 이야기”한다는 심사평을 받았다. 「올해의 여성만화가작품상 ‘그리고 마녀는 숲으로 갔다’ 선정」, 『국제뉴스』, 2024.4.28.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80658>, 2026.01.28.).

4) 『그리고 마녀는 숲으로 갔다』 1의 책 소개 페이지(<https://normala.kr/graphicnovel/?idx=2127>, 2026.01.28.).

5) 『마녀는』은 이런 점에서 미야자키 하야오의 『모노노케 히메』와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하지만, 『모노노케 히메』보다 ‘마녀사냥’의 역사를 직관적으로 상기시키는 희생양 모티프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다.6) 그중에서도 에코페미니스트들은 유럽에서 일어난 마녀사냥이 여성뿐만 아니라 자연과 식민지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규정한다. 가령 페데리치는 “마녀사냥은 남성들에게 여성들의 힘에 대해 공포를 느껴야 한다고 가르침으로써 사회적 재생산의 핵심 요소를 재규정”했다면서 “마녀사냥은 시초축적과 자본주의로의 “이행”에 필수불가결한 사건이었다”고 주장한다.7) 마리아 미즈 역시 “마녀의 처형과 근대과학의 발전은 노예무역과 식민지에서 자급경제의 파괴와 관련”되어 있다면서 유럽에서 자행된 마녀사냥이 자본주의적 가부장적 생산관계의 형성에서 결정적인 사건이었음을 지적하였다.8)

『마녀는』은 이러한 에코페미니즘의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근대 초기 자행된 여성에 대한 폭력이 기후 위기라는 인류사적 문제 앞에서 다시금 벌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제기한다. 초자연적 능력을 지닌 여성들이 ‘만신나루’라는 마녀 보호구역에 유폐된 처지라는 점이나 이들이 식량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지녔다는 점이 주목받으며 갑자기 이들을 희생하여 ‘공공의 이익’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혐오 세력들이 나타난다는 식으로 갈등이 재현된 점이 그러하다. 기후 위기로 인해 생존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에서 사회적 소수자를 희생자를 삼아 두려움을 잠재우려고 하는 유럽식 ‘마녀사냥’의 역사가 얼마든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는 것이다. 이때 『마녀는』의 마녀들과 그 연대자들은 혐오 세력의 공격에 맞서 자연을 포함한 타자에 대한 돌봄을 내세우며 이러한 위기를 돌파하고자 한다.

이렇게 『마녀는』은 유럽 마녀사냥에 대한 에코페미니즘적 관점을 바탕으로 자본주의적 가부장제를 문제화하는 한편으로, 이를 작품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맥락들을 한국적으로 전유하고 있다. 이 작품의 마녀는 무당 혹은 만신이라고 불리는 이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국 무속 신앙과 관련되어 이들의 존재가 설명된다. 전근대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배제되어온 무속 신앙의 의미를 재해석함으로써 이들을 자연과 문명 사이의 경계에 있는 이들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토속적인 것 혹은 토착적인 것을 초자연적인 힘과 연관짓는 시도에는 식민주의적인 근대 체제에 대한 저항의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바, 이 작품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구현하는 방식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 ‘마녀’라고 불리는 인물들의 독특한 관계성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초자연적 능력이 양가성을 지닌다는 점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 작품에서 연대가 지니는 의미를 고찰할 것이다.

『마녀는』은 기후 위기 문제가 매우 심각해진 미래를 배경으로 앞으로 닥칠 미래를 경고하는 한편으로, ‘마녀사냥’의 비극적 역사를 상기시키며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한편 소수자에 대한 혐오 문제가 들끓고 있는 현재 상황을 중첩하며 삶과 죽음의 형이상학적 의미를 아우르는 다층적인 문제의식을 전달한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응축한 존재로서의 ‘마녀’에 주목하여 이 작품이 에코페미니즘의 문제의식을 계승하는 한편으로 이를 다른 방식으로 전유하고 있는 부분을 고찰하고자 한다.

2. 공유재로서의 자연과 멸종 위기의 마녀들

『마녀는』의 서사를 주도하는 인물은 ‘초원’과 ‘산’이라는 두 인물이다. 실제로 1권 표지에는 산이, 2권 표지에는 초원의 모습이 그려져 있기도 하다. 1권은 수도꼭지에서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을 받는 산의 뒷모습을 배경으로 초원의 편지글이 지문으로 실려 있는 장면으로 시작

6) 주경철, 『마녀』, 생각의 힘, 2016, 10쪽.

7) 실비아 페데리치, 『캘리번과 마녀』, 성원·김민철 옮김, 갈무리, 2011, 240쪽.

8) 마리아 미즈,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최재인 옮김, 갈무리, 2015, 180쪽.

한다. “산, // 수도꼭지를 틀면/끝도 모르고 쏟아지는 물줄기가 영원할 거라고 믿었던 눈먼 낙관의 시절이 있었다.//이제는 다들 알지./비어버린 수도꼭지의 주둥이를/손바닥으로 툭 치면 //허공을 텅, 하고 두드리는 소리 뒤로/이어지는 침묵의 서늘함.”(1권, 8-9쪽)⁹⁾ 시적인 느낌을 주는 초원의 편지는 작품 속 상황을 암시한다. 『마녀는』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던 자연의 풍요로움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기 위해 물 부족 문제를 제일 먼저 가져온다. 이후 이 세계가 처한 위기는 식량 부족으로 인해 지방부터 배급제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으로 그려진다.

이처럼 수도권은 여전히 배급제가 실시되지 않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위기가 모두에게 공통된 것은 아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일수록 더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때 편지에서 초원이 자신들을 “우리는 언제나 마을 변두리의 이상한 여자들”이었다고 하며 “우리 와 우리의 어머니”를 불러왔던 이름들, “무당, 의원, 서낭” 등을 아울러 자신들을 아우를 수 있는 호칭으로 “마녀”를 들고 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이 부분은 『마녀는』이 ‘마녀’에 다양한 의미를 중첩하고 있는 점과 관련된다. 역사적으로 공동체에서 소외되어온 ‘이상한’ 존재들, 그 가운데서도 무속 신앙과 관련된 불온한 여성들을 ‘마녀사냥’의 희생자가 되었던 여성들이 다중적으로 겹쳐 있는 것이다. 한편 『마녀는』은 이들이 사회에서 배제당하게 된 근본적 원인으로 이들이 ‘자연’과 맺어온 관계성을 지목한다. “산과 들, 바다와 내통했다는 죄목으로 삶을 천형처럼 짊어지고 살았던 우리 어머니들과 그 어머니의 어머니들... 그 피를 이어받은 우리도 불온함을 등에 업은 마녀라는 종이다”(1권 17쪽)라며, 마녀라는 존재가 가진 기이한 힘을 “산과 들, 바다”라는 자연물로 등치하고 있는 점이 그렇다.

이를테면 초원과 산에게는 식물의 생장을 촉진하는 힘이 있고,¹⁰⁾ 산의 친구로 나오는 너울과 서리의 경우 물과 바람을 다스리는 능력을 지닌 것으로 나온다. 특히 너울의 경우 대상군, 즉 “해녀 중에서도 잠수 가능한 수심이 특히 깊고 기량이 뛰어난 해녀”로 그려진다.¹¹⁾ 이들이 지닌 초자연적 능력은 어머니들로부터 이어받은 것으로 나오는데, 이러한 모계 유전성은 여성들 간의 연대 혹은 자매애라는 『마녀는』이 지닌 주요한 문제의식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이들을 공고하게 이어주는 것은 이십 년 전에 일어난 산불이다. 이들 네 인물은 산불로 어머니를 잃고 고아가 되었으며 사고 당시 열다섯 살이던 초원이 산을 길러내게 된다. 이 산불로 흉터

9) 이 글에서는 충분히 주목하지 못했으나 이 작품은 편지가 지니는 형식을 유용하게 활용하며 시적인 효과를 성취하는 측면이 있다. 이때 대사들이 행갈이 되는 부분들 역시 시적인 느낌을 주는 데 기여하는데, 이 글에서는 이러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 대사가 행갈이 된 빗금 기호를 넣어 표시하였다. 대사 사이에 한 줄 여백이 있거나 말풍선이 바뀐 부분들에는 빗금 기호를 두 번 넣는 식으로 구분하였다.

10) 주경철에 따르면 농업적인 무당과 죽은 자를 만나는 무당은 같은 기원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의 세계관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유한한 세계 너머에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고 죽은 영혼들은 모두 그곳으로 돌아간다. 죽은 자들을 만나는 것은 그곳과 소통할 수 있는 매개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농사 역시 저세상에서 생명을 받아와서 이곳에 짝을 틔우는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모종의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즉 이 작품에서 마녀가 지니는 종의적 의미는 실제로 유럽에서 마녀사냥을 당했던 무당이 지니고 있었던 것이기도 하다. 주경철, 앞의 책, 72-73쪽.

11) 만신나루에 거주하는 마녀의 숫자는 스무 명이 채 안되는 것으로 그려지며 그 중 대부분이 노인인 것으로 언급된다(1권 87쪽). 그중에서도 작품 속 주요 인물들이 20~30대 정도의 젊은 층에 속하며 특정한 자연물의 힘을 조절하는 힘을 지닌 것으로 그려지는데, 이에 비해 같은 마을에 거주하면서도 나아가 훨씬 많은 여성 노인들은 보다 무속 신앙과의 관계가 밀접한 것으로 그려진다. ‘천궁맛이’라는 굿거리를 준비하는 ‘이모’가 등장하거나(1권 26쪽) 산에게 거위를 준 여성 노인이 할멈들과 신당에 가는 길이라고 하며 “우리 산이 굿 한번 혀?”(2권 161쪽)라고 말하는 등의 모습이 그렇다. 무속에 대한 작가의 관심은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¹⁻³(문학동네, 2021~2025)에서도 드러나는데, 이 작품에서도 소수자들의 관계성에 주목하며 삶과 죽음의 (불)연속성에 천착한다는 특징이 드러난다.

를 얻은 이들은 이후에도 철조망에 둘러싸여 출입 통제를 받으며 외부와 고립된 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간다.¹²⁾

그런데 이 이십 년 전의 사고가 남긴 불씨가 만신나루에서 쥐 죽은 듯 숨죽여 살아가던 마녀들의 삶을 다시 휘젓기 시작한다. 오 년 전 초원의 사라짐 역시 이와 무관치 않다. 산이 의대에 진학한 것이나 초원이 사라진 것은 모두 마녀들에게 발병하는 마름병이라는 의문의 병과 관련된다. 초원이 사라진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산은 치료 방법을 알아내지 못한 채 마을로 되돌아오고 초원의 행방을 수소문하지만, 결국 알아내지 못한다. 이때 취재를 위해 만신나루를 찾아온 기자 송주와 함께 초원을 찾아 나선 산은 초원이 자신의 힘을 이용해 장범선의 신품종 작물 개발 연구를 돕다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또 이 과정에서 이십 년 전의 사고 당시 마녀들을 불에 태워 죽이려고 했던 음모의 실체가 밝혀진다.

『마녀는』은 이들이 수용소의 난민과 같은 생활을 하다가 심지어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며, 이러한 폭력을 합리화하는 기제로 근대 과학 패러다임을 지목한다. 근대 과학 체제는 자연을 객체화하여 착취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전환하여 생산성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1권 8장에서 한국식량안보연구소 소장 장범선의 목소리로 전달된다. “우리는 결국/먹을 것이 없어서/서로를 잡아먹게 될거야”라며 인류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과학자 장범선은 “대지 그리고 대기와 함께 호흡하는 일이었”던 농업이 착취적인 것으로 변화하게 된 배후로 근대 과학을 지목한다(1권 184쪽). 기후 위기로 자연을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자명해진 이 세계에서 근대과학 패러다임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 장범선의 입장이며, 이는 『마녀는』의 기초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서 마녀라고 명명된 존재들이 지니는 복합성이 정리되는데, 이들은 무엇보다 근대 과학 패러다임의 타자로 소외, 배제, 억압되었던 존재들을 총칭한다. 무속, 자연, 여성 등은 모두 근대 과학이 처리하지 못한 잉여이자 비체적 존재로 폭력의 희생자가 되어 왔다. 이들에 대한 폭력은 문명화가 개발의 이름으로 정당화되었는데, 이들은 거의 전쟁 상태에 처해있다고 할 만큼 살해의 위협에 노출되어 왔다. 『마녀는』이 자신들의 존재를 설명하며 “미약하나마 물리법칙에 반하는 힘을 가졌다는 이유로 괴물이 된 여자들이고./그래서 사냥당해 멸종 위기에 접어든 여자들”(1권 20쪽_강조 인용자)이라는 설명은 이러한 상황을 암시한다. 동물에 대한 인간의 폭력 체제가 전쟁을 구성하고 있다고 주장한 다네시 J. 와디웰에 따르면, 산업화와 세계 경제의 확대는 거대한 규모로 비인간 생명의 피해와 죽음, 종의 멸종을 야기했다.¹³⁾ 『마녀

12) 이들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정 기간마다 ‘거주인 등록 갱신’을 해야 하는 특수한 존재로 그려진다. “초자연자 보호구역 설정(마녀 특별법)”에 따라 분리 이주한 이들에게 국가는 복지 바우처를 지급하는데, 이들이 비과학적이고, 사회 질서를 혼란하게 할 만한 행위를 하거나 거주지를 벗어날 경우 복지 혜택에 제한을 준다는 식으로 설정되어 있다. 3장에서 다루겠지만 이는 유럽 식민 지배자들이 선주민을 강제 이주하여 특정 지역에 거주하게 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온 식민 지배의 역사를 상기시킨다.

13) 다네시 J. 와디웰, 『동물 전쟁』, 29쪽. 와디웰은 인간의 활동이 비인간 동물 생명을 괴멸적인 영향을 미쳐왔음을 지적하며, 그것이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방식으로 작동했다는 점에서 ‘전쟁’ 개념을 적용하여 설명한다. 특히 군사학자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가 제시한 전쟁관에 주목하여 “완전한 지배를 목표로 한 집단이나 단체의 조직된 폭력 현상”으로 이해한다. 푸코 역시 “전쟁이란 다른 수단에 의해 계속되는 정치”라는 클라우제비츠의 명제를 “정치란 다른 수단에 의해 계속되는 전쟁”이라고 반전시켜 근대국가의 주권이 지속적인 전쟁 승리와 그 승리로 초래되는 죽음을 가할 권리 위해 구축된다는 점을 주장한 바 있는데, 와디웰은 이러한 푸코의 주권 개념을 동물 생명에 적용하여 인간에 의한 동물 지배양식을 분석한다(위의 책, 42~48쪽). 관련해서 『마녀는』에서 마녀들이 ‘야생’에 가까운 존재들로 주권을 박탈당한 상태라는 점은 의미심장한 부분이다. 유용성에 따라 그 생명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보는 점에서 이들은 거의 ‘동물’과 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는데, 이 작품은 단순히 마녀도 ‘인간’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녀들뿐만 아니라 비인간 동물을 포함한 자연의 주권을 박탈해버린

는』 역시 근대과학 패러다임에 포섭되지 않는 ‘마녀’라는 새로운 종에 주목하여 이들이 근대 패러다임을 주도해온 인간종과의 전쟁을 벌이는 상황을 포착해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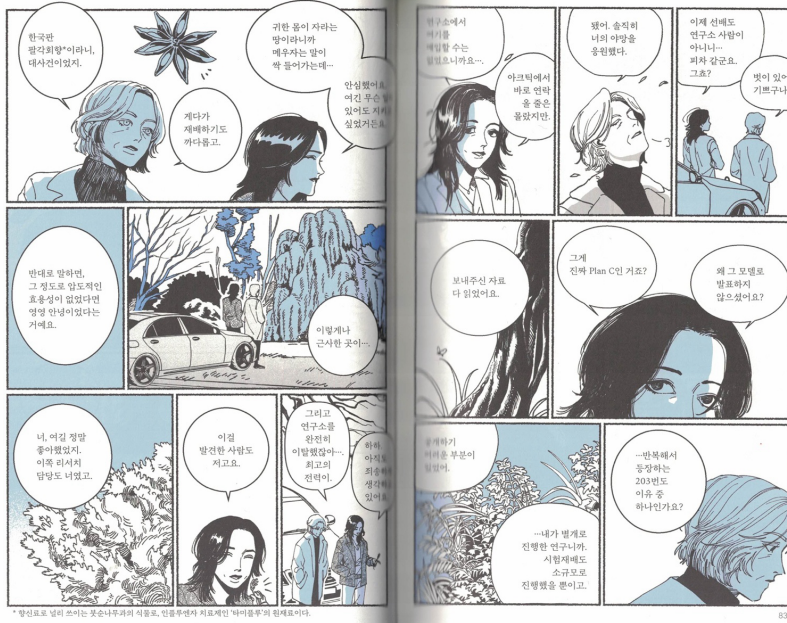


그림 1. 『마녀는』 2권 82-83쪽.

다만 기후 위기로 식량난이 심각해진 『마녀는』의 상황은 새로운 반격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반이 된다. 장범선과 같이 근대 과학 패러다임의 한계를 주장하는 과학자가 출현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이러한 포스트 아포칼립스적 상황 덕분이다. 식량 위기의 위협이 본격화되는 상황에도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려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녀들의 거주 구역 일대(사월산 보호구역)를 골프장으로 개발하려는 세력으로 묘사되고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마녀는』의 작가는 자연을 보호해야 할 대의적 가치를 공유재(communs)¹⁴⁾의 측면에서 설득하려고 시도한다. 에코 페미니즘 이론가들이 마녀사냥과 공유지의 파괴를 연결지며 사적 재산으로 취득 가능한 것이 된 자연의 객체화가 진행되었다고 본 입장과 관련된다.¹⁵⁾ 이러한 상황을 보다 설득력 있게 보여주기 위해 『마녀는』은 촘촘하게 근거를 마련한다. 2권 3부에 장범선의 후배로 등장한 인물은 아크틱바이오라는 기업체 연구원인 천미란으로, 공항부지로 개발될 예정이었던 습지를 지켜던 인물로 그려진다. 근대 패러다임 아래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 땅으로 여겨졌

주권 개념 자체를 근본적으로 문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측면이 있다.

14) 공유재란 “물질적/비물질적 대상, 공유 활동과 삶의 방식으로서의 공유의 실천, 경제사회적 질서 등” 여러 의미로 사용된다(데이비드 볼리어, 『공유인으로 사고하라』, 배수현 옮김, 갈무리, 2015, 11 쪽). 개럿 하딘에 의해 주장된 ‘공유지의 비극’이 공기, 목초지 등 공동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원을 시장에 맡겼을 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에 의해 남용되어 자원이 고갈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는데, 볼리어는 하딘이 말하는 공유지는 진정한 의미의 공유재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여기에 “자원을 지키는 양심있는 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기꺼이 하고자 하는 공동체의 존재”가 빠져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하딘을 비롯해 시장 개인주의에 대한 맹목적 신뢰를 가지고 있던 존 로크 등의 철학자들이 아메리카 신대륙을 “개방된, 임자 없는 땅”으로 다룬 것 역시 이러한 태도와 관련된다. 이를 통해 아메리카 대륙에 “성문화되지는 않았지만 매우 복잡한 규칙을 통해 자연자원을 소중한 공유[재]로서 지켜 온 수백만 아메리카 원주민이 살아온 땅”이었다는 사실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위의 책, 51 쪽.

15) 마리아 미즈, 앞의 책, 176-177쪽.

던 습지 바닥에서 역병을 끝장낼 수 있는 물품을 발견한 것이 바로 이 인물이다.

장범선은 이를 “한국판 팔각회향”이라고 명명한다(그림1). 팔각회향은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원재료로, 『마녀는』은 이러한 실제 사례를 가져와 자연에 잠재된 효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무차별적으로 자연에 대한 개발이 이뤄지는 것의 위험을 지적한다. 하지만 한편으로 천미란이 이어지는 대화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 압도적인/효용성이 없었다면”(2권 82쪽) 해당 부지의 개발을 막기 어려웠을 것이다. 장범선이 초원의 도움을 받아 식량 안보연구소에서 신종 작물 개발을 진행한 사실을 비밀에 부치는 것 역시 이 때문이다. 마녀들이 지닌 힘이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되는 순간, 이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는 마녀와 같은 존재들이 효용 가치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마녀는』은 생명이 그 자체로 살아갈 권리를 인정받지 않는 세상에서는 누구나 멸종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근대 패러다임을 넘어 인간/비인간에 보편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한다.

3. 탈식민적 토착성과 반전하는 희생양 서사

애슐리 도슨은 전 세계가 대규모 멸종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지구상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절반 이상이 열대우림 지역의 육상 및 수상 서식지에 살고 있는데, 열대는 “멸종을 이끄는 도살장”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다. 여기에 갇혀 사는 동물종과 식물종은 “서식지 파괴, 외래종, 남획, 점차 강도를 더해 가는 인간이 초래한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애슐리 도슨이 지적하듯 멸종 위기는 수많은 생물종의 문제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결국 지구에 갇혀 살아가는 인간의 거주권마저 위협에 빠뜨리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¹⁶⁾ 특히 도슨은 탈식민지 국가에서 자행되는 착취와 폭력이 생물다양성 감소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더 많은 것을 상품화하여 지구의 다양성을 빼앗는 자본의 확장은 결국 자신의 재생산 조건마저 파괴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기후위기와 더불어 멸종을 “지구 전역에서 자행되는 공공재에 대한 공격의 산물”로 재인식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¹⁷⁾

하지만 여전히 근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간은 다른 종의 착취를 통해 자신의 멸종을 피할 수 있으리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장범선과 대립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천건미이다. 천건미는 장범선을 연구소에서 밀어내고 신임 소장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인물로, 장범선과 재회한 자리에서 마녀들이 지닌 불가해한 힘을 이용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낸다. 이십 년 전 화재 당시 초원이 식물 생장시키는 기이한 힘을 지녔음을 확인했음에도 초원을 치료하고 그냥 보내주었던 장범선과 달리, 이 현장을 목격한 천건미는 마녀의 힘을 이용하는 문제에 대한 윤리적 고민을 하지 않는다. 천건미는 무백건설 회장 출신으로 4선 의원이자 대선을 노리는 아버지 천일주의 권력을 교묘히 이용해 자신의 계획을 진행하려 한다. 초원을 대신하여 산을 실험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인데, 이를 위해 기자회견을 통해 여론을 조성하는 치밀함을 보인다. 무백건설이 만신나루 일대를 무리하게 개발하도록 뒤에서 조종하는 한편, 이에 따라 만신나루가 ‘공적 가치’가 있는 마녀들이 살기에 안전하지 않게 되었으니 이들을 이주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다. 다음 장면에서 『마녀는』은 천건미의 대사를 통해 마녀의 생존과 마녀 공동체 바깥 사회 인간들의 생존을 대립시키는 구도의 폭력성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보여준다.

16) 애슐리 도슨, 『멸종』, 추선영 옮김, 두 번째 테제, 2021, 12-13쪽.

17) 위의 책, 15쪽.



그림 2. 『마녀는』 2권 67쪽.

이 장면에서 천건미는 결국 초원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한 장범선의 위선¹⁸⁾을 지적하며 자기 입장을 합리화한다. 천건미는 “작금의 마녀들은/보호구 밖에서는/살 수 없는./말하자면/야생절멸¹⁹⁾ 상태”라고 보면서 어떻게든 마녀들을 이용해 자신의 계획을 실현시키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그런데 이러한 천건미의 주장이 식량 배급이 이뤄지고 있는 ‘중산 제3배급소’를 배경으로 한다. 마녀들의 힘을 이용해 식량 증식에 성공하게 되면 배급제 실시로 생존의 위험을 겪고 있는 여론을 자기 편으로 돌려 막강한 힘을 쥌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천건미의 기자회견 이후 유튜브들이 만산나루를 둘러싼 철조망 근처로 가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이는 마녀 공동체를 절멸시킬 수도 있는 위험한 발상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건미는 이를 다수의 이익을 내세워 관철하려 하는데, 이것이 “멸종은/모두의 문제”라는 대사를 통해 극적으로 표명된다. 결국 천건미는 ‘모두’라는 보편적 가치를 내세워 권력을 쥐려는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모두’에는 ‘마녀’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천건미는 산을 희생양으로 선택한다. 연구에 협조하지 않으면 사월산 일대에서 살아가는 마녀 공동체를 와해시키겠다며 산을 협박한다. 이러한 점에서 2권의 중반 이후부터 이들이 살아가는 공간의 토착적 의미가 부각된다. 정부에 의해 강제로 이주하여 고립된 채 살게 된 공간이기는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사는 땅에 애착을 가지고 있다. 『마녀는』은 이를 마녀와 야생이 맺고 있는 순환적 관계성을 바탕으로 드러낸다. 즉 이십 년 전 화재로 목숨을 잃은 초원과 산, 너울, 서리의 엄마들이 숲이 되고 호

18) 물론 이는 천건미의 오해이기도 하다. 하지만 장범선 스스로도 죄책감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초원이 동의했다고 해서 윤리적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19) 각주 형식으로 야생절멸을 “동물의 멸종 단계 중 멸종 직전의 단계. 야생으로 풀어놓을 경우 생존이 불가능한 종을 말한다.”(2권 66쪽)라고 해석하고 있는 부분을 통해서도 마녀들의 존재가 인간들의 문명보다는 야생과 동일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인류 혹은 인간, 인권 등의 이름으로 타자를 억누르면서 보편을 참칭해 온 역사에 대한 비판과 맞닿아 있다.

수가 된 것처럼 마녀들이 죽으면 그들은 야생으로 돌아간다.²⁰⁾ 초원이 산에게 “이곳이 사라지지 않는 한 잊어버릴까봐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여기만큼은 절대 잃지 않을거야”(1권 41쪽)라며 공간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는 결국 장범선이 천건미에게 대항할 논리를 마련하는 거점이 된다. 장범선은 천모란과의 대화를 통해 필리핀 팔라완의 마녀 사례를 언급한다. 미군 기지를 세운다면서 팔라완에 살던 마녀들을 루손섬으로 이주시켰는데, 그렇게 기지 건설이 이뤄진 시기에 식생이 줄고 마녀들도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다. 마녀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주시켜야 한다는 이유를 내걸고 산을 헐박하던 천건미의 논리에 맞서 마녀들을 대대로 살아온 땅이 지니고 있는 신비한 힘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주도 막고 마녀들에게 적대적인 분위기도 잠재우려 한다. 『마녀는』에서 식량 위기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이는 식민화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식민화 과정에서 특히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플랜테이션 경제는 단일 작물 재배 방식으로 식민지 토양을 고갈시켰고 조성 과정에서 숲이 사라진 결과 강수량이 줄면서 환경 황폐화와 기후 변화가 발생하였다.²¹⁾

기후 위기와 멸종, 그리고 식민화를 초래한 것은 이러한 유럽의 지배 이데올로기이며, 이는 신식민주의 이데올로기 체제 안에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페데리치에 따르면 노예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식민화와 기독교화를 통한 자본주의의 전 지구적 확장은 마녀사냥과 유사한 박해가 식민화된 사회에 뿌리내리게 하였다.²²⁾ 『마녀는』이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장범선의 입을 빌려 미군 기지의 사례를 언급한 것은 이러한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미국은 원주민의 식량 자원을 빼앗기 위해 수천 마리의 들소 떼를 몰살한 역사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아메리카 원주민은 보호라는 명목하에 불모의 보호구역에 고립되었다. 또 베트남 열대우림에 2천만 헥타에 달하는 살충제를 살포하는 생태 파괴를 자행했으며, 여전히 전 세계 700곳에 기지를 운영하며 지구에서 가장 심한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²³⁾ 미국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 식민주의에 동조하는 세력들은 기후 위기와 대멸종 문제를 방관하거나 심지어 가속하고 있다. 그 결과 인류가 식량 위기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연과 그 자연을 수호하면서 나아가는 이들에 대한 ‘마녀사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마녀는』은 지적하고 있다.²⁴⁾

이와 달리 만신나루 마녀들에게 자연은 객체화되는 자연이나 이익을 얻기 위해 개발해야 하는 대상물이 될 수 없다. 『마녀는』에서 자연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기억이 전승되는 생명의 터전이다. 기자회견 이후 할머니들을 찾아간 산은 “이 땅/한 줌 한 줌이/다 내 어린 것/

20) 이 작품에서 화재 사고가 반복되는 것 역시 마녀들이 산 채로 화형을 당했던 마녀사냥의 역사를 상기시킨다.

21) 애슐리 도슨, 앞의 책, 50쪽. 페데리치는 플랜테이션이 엄청난 규모의 잉여노동을 축적함으로써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자본주의 계급관계의 패러다임으로 작동하고 있는 노동의 경영, 수출지향적 생산, 경제통합, 국제적 분업의 본보기가 되기도 하였다는 점을 지적한다. 페데리치, 앞의 책, 170쪽.

22) 페데리치, 앞의 책, 341쪽.

23) 애슐리 도슨, 앞의 책, 60-61쪽. 미군은 단일조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선진국을 포함한 140개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다 합쳐도 미군의 배출량보다 적다. 이나미, 『생태시민으로 살아가기』, 알렘, 2023, 7쪽.

24) 이러한 점에서 애슐리 도슨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포섭된 주류 환경운동과 반자본주의 보존운동을 대비시킨다. 철저한 반자본주의 보존운동은 멸종 문제가 자본주의가 특정한 사람, 동물, 식물을 지배하면서 나타난 사회 정의의 문제라는 점에 기반한다. 생명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축적의 장에 맞서 “토지, 사람, 동식물을 상품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거부”하며 “지구 전역의 공공재를 인클로저”하고 “생물해적질을 자행”하는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에 저항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책, 91쪽.

살점인데” 어떻게 자신이 이 땅을 떠날 수 있겠냐며 차라리 여기서 죽는 걸 택하겠다는 할머니의 말을 듣는다. 1권에서 산이 송주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범신론적 자연관이 표명된 바 있다. 산은 자신들이 믿는 신은 ‘바깥’의 신과는 다른 것 같으며 그 예로 봄에 파종하기 전에 흙을 그릇에 띄워서 기도를 했던 엄마에 대한 기억을 들려준다. 또 “마을 나무들은 /저마다/이름들이 있었고, //계절마다 뭘 수확하든/그걸 내어준 주인에게/인사하는 게 먼저였어요.”(1권 136-137쪽)라는 말도 전한다. 이는 나와 자연,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에서 나온 의례적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나미는 마녀사냥을 자본주의가 여성을 상대로 한 전쟁이었다고 주장하는 페데리치의 견해를 지지하며, 이것이 자본주의의 시초축적이 무엇보다 “마녀의 박멸을 통해 영성과 커먼즈를 붕괴시킨 결과”²⁵⁾라고 본다. 아울러 영성이란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경험 또는 직관을 통해 아는 것”으로, “나와 타인, 나와 자연이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커먼즈적”인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한다.²⁶⁾ 영성과 마법은 우주를 하나의 살아 있는 전체로 여기게 한다. 하지만 우주 안의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사고는 자본주의적 노동 합리화를 저해한다. 홉스는 미신을 제거하면 인간이 “훨씬 더 복종을 잘 하게 될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²⁷⁾ 과학적 합리주의에 의해 인류와 자연은 근본적인 단절을 겪었고 더 불어 정복, 노예화, 약탈, 살인 등을 통해 급속도로 자본주의로 나아가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마녀는』에서 마녀들이 지닌 신비한 힘은 무엇보다 이러한 영성의 가치에 기반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점에서 『마녀는』에서 산이 지니는 위상은 독특한 부분이 있다. 산은 영성이 지니는 힘을 회의하고 특히 마녀가 죽어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비극’으로 인식한다. 산은 마녀 공동체와 그 공동체 바깥 사회의 경계에 있는 인물로 초원을 지극히 사랑하지만, 초원이 자연이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점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한다. 초원은 마녀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의문의 불치병인 마름병 증세가 심각해지면서 장범선을 찾아가 자신이 실험 대상이 되겠다고 자원한다. 마름병 치료라는 조건을 장범선에게 내세우기는 했지만, 초원이 자기 목숨을 자발적으로 희생하고자 한 것은 분명하다. 이에 비해 산은 초원이 장범선을 자발적으로 찾아간 것이 맞는지 의심하고 산은 마녀들의 이주를 막기 위해 자신이 희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망설인다.²⁸⁾

요컨대 『마녀는』에는 두 가지 희생양 서사가 존재한다. 이 서사는 윤리적 면모를 지닌 장범선과 권력 지향적 과학자로서 천견미라는 대립적 인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발적 희생(초원), 강요된 희생(산)이라는 의미망을 일차적으로 형성한다. 그런데 2권 8장에서 초원의 아이인 동백이 등장하면서 희생의 의미는 반전된다. 원래 산은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마녀 공동체를 지켜내려 하지만, 동백을 보면서 아이 곁에 있어 주어야겠다고 결심한다. 즉 동백의 등장은 산이 초원과 같은 방식으로 실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희생의 연쇄를 단절하고 산에게 강요된 희생으로부터 산을 면제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마녀는』 산이 자신들을 해치려 했던 사람

25) 이나미, 「이단과 여성 학살을 통한 자본의 시초축적」, 『뉴래디컬 리뷰』 4, 도서출판b 7, 2022 여름호, 3쪽.

26) 위의 글, 58쪽.

27) 위의 글, 78쪽.

28) 산이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미 이십 년 전에 “가뭄 해갈”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워 마을의 마녀 한 명을 동원했다가 죽기 직전에야 돌려보낸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동원되었던 마녀는 그 후로 얼마 못 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과 외부 사람들 사이에 대치 상황이 벌어지면서 결국 마녀들을 죽이려는 음모로 이어지게 된다(2권 193-195쪽).

들을 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을 희생한다는 결말을 향해 나아간다.²⁹⁾ 천건미에 의해 강요된 선택으로부터 벗어나 희생양 연쇄고리를 끊어버리는 한편, 마침내 자기 적들을 불길에서 구해낸 구원자가 된 것이다. 이러한 결말이 지니는 의미를 작품의 주제 의식과 관련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원과 산을 중심으로 작품 속 인물들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취약성으로 연결된 돌봄과 환대의 네트워크

『마녀는』은 초원과 산이 응답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1권이 초원의 편지로 시작되었다면 2권은 산이 그에 대한 답장을 쓰는 구조로 되어있는 것은 이러한 맥락과 관련된다. 초원의 편지를 반복해서 읽으며 그녀를 기다리는 과정이 산에게는 초원의 편지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모색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초원과 산은 ‘마녀’라는 정체성을 공유하며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사이이지만, 한편으로 초원은 배워야 할 것들을 산에게 전승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초원이 남긴 말, 이를테면 “세상에는 산 것보다/살아남은 것들이 더 많아./그러니 우리는 서로를 돌봐야 해”(1권 62쪽)은 산에게 세상을 살아나갈 지침이 된다. 산이 초원이 사라진 후 의사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만신나루 마을로 돌아와 약사로서 마을 사람들을 돌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초원의 가르침을 계승하면서 공적인 의미에서 더 확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초원의 가르침은 산을 통해 수행되며 그 의미가 개시되는 것이다.

초원과 산의 희생이 지니는 의미가 변주되는 것 역시 이러한 독특한 반복 구조와 관련된다. 초원은 자기가 희생하더라도 “마녀의 생애는/한 세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장범선에게 말한다(2권 212쪽). 자신이 낳은 아이가 산의 곁에서 살아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자신이 희생함으로써 산을, 나아가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도 보여준다. 마름병에 걸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감한 상태에서 마녀들을 마름병에서 구할 치료법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식량 재배 실험을 돕고 또 산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딸을 남기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초원이 죽었다는 사실을 산이 확인하게 되는 2부 8장이 시간상으로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초원의 희생이 의미하는 바를 여러 면에서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주목된다. 장면이 전환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2부 8장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1) (현재) 장범선이 동백을 산 앞에 데리고 나타나 동백의 죽음을 알린다. 산은 초원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동백과 만난다.
- 2) (과거1-1) 장범선은 임신한 채 누워있는 초원에게 이러한 선택을 한 이유를 묻는다.
- 3) (과거2) 산과 초원이 나란히 자다가 깨어 “영원히 사는 꿈”(2권 217쪽)에 대한 대화를 나눈다.
- 4) (과거1-2) 상태가 좋지 않은 초원이 장범선과 대화하는 장면이 이어진다. 2번에서 이야기한 것과 상반되는 초원의 속마음이 나타난다.
- 5) (현재) 장범선이 산에게 그간의 사정을 설명하는 한편 만신나루에서 실험을 이어갈

29) 이와 관련된 작품 후반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건미는 산을 실험 대상으로 삼기 위해 음모를 짰다. 기자회견에서 마녀 이주 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만신나루 마을을 물과 전기 공급을 끊기까지 한다. 이때 동백이 갑자기 고열이 나면서 병원에 가기 위해 산과 송주는 마을 바깥으로 나가려 하는데, 보호구역에서 당장 나오라며 이들을 위협하는 시위대가 출입문을 막고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 가까스로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지만, 갑작스런 사고로 화재가 발생하면서 산과 송주는 울타리로 피하려 한다. 그런데 이때 이들을 쫓아온 시위대가 화재에 휩싸인 것을 발견한 산이 자신을 희생해 천건미와 시위대 사람들을 화재에서 구해낸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한다.

이 부분은 내용이나 형식 면에서 모두 『마녀는』을 아우르는 문제의식을 함축하고 있다. 시간순으로 보면 가장 앞서서 3)를 중심으로 초원의 마음이 반전되어 나타나는데, 이렇게 해서 밝혀지는 초원의 속마음이 1)에 나타난 산의 입장과 일치한다.³⁰⁾ 장면 순서대로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다. 먼저 1)에서 초원의 죽음을 전해 들은 산은 어머니 동네 어른들, 그리고 초원 역시도 “마녀들은/죽어도/죽은 게/아니다.”라는 말을 하지만 자신은 잘 모르겠다면서, “없는 건/없는 거야./목소리도./눈도./입술도 없어.//죽은 건/죽은 거야...”라고 말한다(2권 206쪽). 마녀가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삶을 산다고 하는 사실에 회의적인 산의 태도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런데 2)번 장면에서 “마녀의 생애는/한 세대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했던 초원이 4)에서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어떻게/다시 태어난 내가/지금의 나와/같을 수 있겠어요?//같은 몸을/하고 있어도/기억이나 경험이나/다르면 타인이나/다름없잖아요.”라고 말한다.



그림 3. 『마녀는』 2권 212-213쪽. 2)번 장면.



그림 4. 『마녀는』 2권 214-215쪽. 3)번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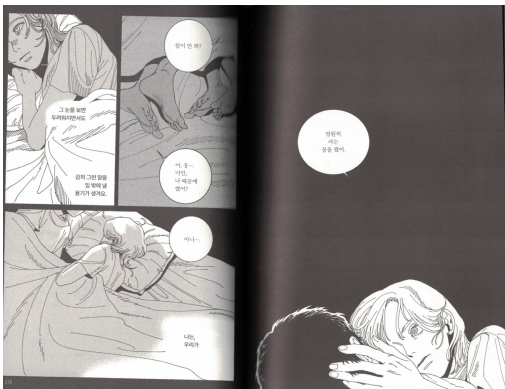


그림 5. 『마녀는』 2권 216-217쪽. 3)번 장면.



그림 6. 『마녀는』 2권 220-221쪽. 4)번 장면.

30) 이 부분은 특히 『마녀는』이 그래픽노블로서의 장치를 잘 활용한 장면이기도 하다. 허도경에 따르면 “그래픽노블은 한 패널 안에서든 현재와 과거를 나타내는 그림 이미지의 표현·문자 언어적 표지, 컷 삽입·겹침과 컷 사이의 간격, 색조 등의 다양한 배치와 구성을 통해 선형적 시간관념을 약화하고 서로 다른 시공간이 공존한다는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는 단순히 서사의 순서가 과거 회상을 취하거나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는 것을 넘어”서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현재와 과거의 기억이 교차되고 있는 이 장면에서 인물들이 하는 발화의 의미가 굴절되면서 의미의 확장을 가져오는 것이다. 허도경, 「한국전쟁 그래픽노블과 증언의 수사학」, 113쪽.

이와 같은 장면의 배치는 이 작품을 아우르는 화두인 “영원히 사는 꿈”이 지나는 의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장치가 된다. 초원은 자신이 산을 거두어 키웠듯 산이 동백을 맡아서 길러내도록 한다. 하지만 초원을 유일무이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산에게 초원은 대체 가능한 존재가 될 수 없다. 이 사실을 초원 역시 알고 있다. 신비한 힘을 가지고 죽음을 초월해 있는 듯한 마녀들조차 자아에 대한 관념을 완전히 떨쳐버린 것은 아니다. 이들이 세대에서 세대를 거쳐 “영원히 사는 꿈”³¹⁾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초월 혹은 도약이 필요하며, 이는 초원과 산의 희생이 지나는 의미를 마침내 개시하게 만든다. 초원의 희생이 지나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던 산이 이 도약을 통해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산은 초원=동백을 위해서 화재 현장에서 자신을 희생하여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작품 전체의 구조 속에서 이 부분의 의미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보자. 동백이 나타나기 전까지 산에게 초원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초원 혹은 마녀 공동체에 대한 산의 사랑은 마녀라는 정체성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배타성을 띠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는 사회가 마녀들을 저주받은 존재로 배제해버린 데 따른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고립되어 내적으로 결속된 공동체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마녀들이 걸리는 마름병이라는 불치병을 말함)와 대면하면서 산 역시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었으며, 초원 역시 장범선에게 도움을 청하게 된다. 초원의 실종 때문이기도 하지만 산은 성과 없이 마을로 돌아오고 외부에 대한 적대감 역시 지속되고 있다. 천건미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구를 수락하려고 결심하기도 하지만, 이는 당연히 초원이 하는 희생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초원은 자신 역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이 지나는 의미를 전환하려고 하였고, 산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다가 마침내 동백이라는 메신저를 경유해 그 의미를 받아들리게 된 것이다.

산이 천건미에 의해 강요된 희생을 받아들일 거부하고 초원이 자신에게 응답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2권 12부이다. 퇴거 강제 집행일을 공지하러 온 천건미의 방문 이후 산은 자신만 희생하면 된다는 입장을 보이는데, 이 부분에서 산의 근원적 죄책감(“살아 있는/것만으로도/죄를 짓는/기분”-2권 323쪽)이 드러난다. 강요된 희생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적 기제에는 산의 죄책감이 자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어지는 장면에서 동백의 포용을 받으며 산은 “너랑 함께라면/다른 생을 살더라도/행복할거야”(2권 325쪽)라는 초원의 말이 자신이 바로 동백이나 다름없으니 동백의 곁을 지켜주라는 당부였음을 깨닫게 된다. 이 당부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서 산은 죄책감에서 벗어나 동백에 대한 책임(responsibility)을 받아들임으로써 초원의 죽음에 응답(respond)한다. 아울러 이러한 산의 변화는 이후 인간에 한정하지 않고 해러웨이가 말한 다종간 응답-능력(response-ability) 문제로 전환된다.

산이 장범선과 초원이 죽고 나서 생긴 동백숲을 처음 방문하는 장면이 그렇다. 초원이 남긴 유언장과 숲을 거니는 산의 모습이 교차하는 이 장면은 초원이면서 초원이 아닌 동백숲과 산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구성된다. 초원은 이 글에서 “숲에는 눈과 귀가 있어./팔도, 입술도 있으니 어루만지고 속삭일 수 있지./초목이 눈 멀고 귀 먹었다 하는 것은 그런 세계밖에

31) 마녀들은 스스로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아이에게 자신의 능력뿐 아니라 외모 등을 유전할 수 있다. 또 죽어서는 자연물로 남기 때문에 완전히 그 존재가 사라진다고도 할 수 없다. 하지만 초원이 “영원히 사는 꿈”이라고 했을 때 이는 단순히 물질적 흔적을 세상에 남긴다는 의미로 한정되지 않는다. 이것이 초원이 자기 죽음을 직감했을 때 장범선을 찾았는지를 살펴야 하는 까닭이다.

살지 못하는 사람의 말이다.”(2권 443쪽)라면서 산에게 동식물과 같은 비인간 존재자들을 응답하는 존재로 바라보라고 말한다. 그리고 실제로 초원이 산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는 사실이 “잘 자, 산아”(2권 447쪽)라고 초원이 인사하는 장면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초원의 영성이 갖는 자연물로서의 숲은 응답-능력을 지닌 대상으로 산과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산 역시 숲에서 초원의 존재를 느끼고 초원의 편지에 답신을 보내게 된다.

이는 인간과 동물을 존재론적으로 구분하며 동식물을 인간에게 기계처럼 반응(reaction)하는 존재로 구분하던 전통적 존재론에서 벗어나 기존의 책임 개념을 응답-능력을 재의미화한 도나 해러웨이의 주장을 연상시킨다. 해러웨이는 인류세 시대에 인간이 자연에 대해 일방적 책임을 지닌다는 논의가 지닌 한계를 지적하며 종 간의 응답-능력을 새로운 생태 정치의 실천을 위한 덕목으로 확장한다.³²⁾ 해러웨이는 근대적 ‘인간(homo) 개념 대신 죽어서 양분이 되는 퇴비(compost)로서의 인간을 강조하며, 인간을 포함한 지구 행성에 거주하는 존재들과 ‘친족(kinship)³³⁾ 만들기’를 실천할 것을 제안한다.³⁴⁾ 여기서 퇴비는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 “죽음과 생명의 계속성”³⁵⁾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퇴비’들은 서로 함께 되어가는 (becoming-with) 공생적 관계의 존재를 가리킨다. 이러한 해러웨이의 이론을 적용한다면 『마녀는』은 다종간 응답-능력을 지닌 마녀라는 존재가 다시 자연물로 돌아간다는 설정을 통해 주체-객체의 이원론을 허물어 개체들간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 친족 만들기를 재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³⁶⁾

동백이 바로 초원이라는 존재론적·인식론적 도약이 산을 강요된 희생에서 벗어나게 했다면, 화재에서 사람들을 구한 산의 자발적 희생은 인간의 근본적 취약성³⁷⁾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돌봄의 대상이 확장된 결과이다. 이는 불구덩이 속에서 사람들을 구해내기 직전 산이 하는 말, “이런 불구덩이/안에서는/그 누구도, //혼자서/살아남을 수/없어”(2권 411쪽)라는 대사를 통해 직접 표명된다. 그 사람들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게/누가 되었던/불 속에서/죽는 것은/보고 싶지 않”(같은 쪽)다면서 자신을 희생하고야 하는 산의 결단은 배

32) 현남숙, 「D. 해러웨이의 다종적 생태정치: ‘함께-되기’와 ‘응답-능력’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 35, 한국여성철학회, 2021, 99쪽.

33) 해러웨이에게 친족은 “인간예외주의나 인간중심주의에서 빚겨나” “다종의 관계성(multispecies relationality) 맺음”을 의미한다. “인간과 비인간 다종의 유기체, 무기물 모두 서로의 포식자이자 벗 잇감이며 숙주와 기생 생물이거나 공생하거나 무관심하게 관계를 맺거나 이런 관계를 넘어서, 특정 상황에서 다종의 관계적 배치에서 특정한 존재가 되어”왔다는 데 주목하는 것이다. 김은주, 「홀로바 이온트의 응답하기, 기억하기: 해러웨이의 친족 만들기과 SF 글쓰기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 42, 한국여성철학회, 2024, 108쪽.

34) 도나 해러웨이, 『트러블과 함께 하기』, 최유미 옮김, 마농지, 2021, 13, 16쪽.

35) 위의 책, 13쪽.

36) 『마녀는』 1권에는 작가가 이 작품을 쓰게 된 계기가 언급되는데, 이 역시 다종간 응답-능력을 보여 준다. 작가는 건물 리모델링 과정에서 잘려 나가고, 제초제까지 투입되었던 무화과 나무가 결국 고사하는 것을 목격한 경험을 이야기한다. 즉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죽어가는 무화과 나무의 말 걸기에 응답한 것이다. 그해 여름 마트에서 파는 애호박 가격을 보며 기후 위기를 실감했다는 작가는 이 작품이 “죽은 무화과나무와 오천삼백 원짜리 애호박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건물을 짓기 위해 아무렇지도 않게 무화과나무를 고사시켜버리는 문명의 끝이, 인간조차 살 수 없는 기후의 지구라는 점이 이를 통해 암시된다. 역으로 인간이 다종간 응답-능력을 회복하지 않는 한,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일도 난망할 것이다.

37) 취약성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였다. 이 글에서 이현재는 버틀러의 이론으로 다음과 같이 취약성을 설명한다. “근본적인 사회성으로 인해 우리는 응답의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타자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에 자신이 부분성 및 취약성을 갖는 존재임을 알게 된다. 여기서 취약성이란 내가 피해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탈취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이현재, 「도나 해러웨이의 포스트휴먼 페미니즘과 난잡한 돌봄 공동체」, 『한국여성철학』 37, 한국여성철학회, 2022, 51쪽.

타적 정체성에 기반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마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들을 구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들을 구해준다고 이들이 다시 마녀들을 적으로 돌리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결국 산은 우리가 혼자 살 수 없는, 서로 연결된 존재라는 진실에 마침내 도달하고 만다. 그리고 이이야말로 초원이 말하는 “영원히 사는 꿈”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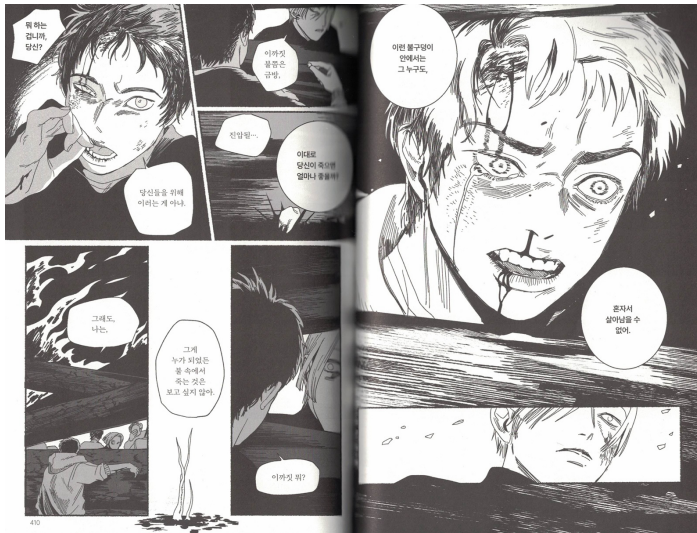


그림 7. 『마녀는』 2권 410-411쪽

산이 도달한 진실은 2권 에필로그에서 산이 초원에게 쓰는 편지를 통해 더욱 분명히 전달된다. 이 편지에서 산은 초원의 존재를 매 순간 실감한다. 아울러 무화과 잎이 타 죽는 절망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그것에 응전하는 생명의 힘을 발견한다. 기어코 살아남은 열매가 익어가고, 또 “우리는//그 살아남은/열매로//살아남아야 하는/운명이라는 것”(2권 455쪽)이다. 산은 초원을 그리워할 때마다 만지는 갈비뼈도 초원이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언젠가 우리가/숲과 숲으로./뿌리와 뿌리로/맞닿게 된다면/그때 증명”하겠다고 나중을 기약한다. 초원의 죽음에 대한 애도와 더불어 죄책감 대신 사랑으로 다시 초원의 존재를 손끝에서 짚어내고, 초원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초원의 숨길을 느끼는 산의 편지로 작품은 마무리된다. 1권과 2권의 계절은 모두 여름이지만, 이 계절이 지니는 의미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전환된다.

산이 이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게 한 동력으로 작용한 것은 초원과 산을 둘러싼 여성들의 두터운 네트워크의 구축 덕분이다.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마녀는』의 인물관계는 크게 두 개의 대칭을 통해 구성된다. 희생의 의미를 반전시키는 초원과 산의 감정적 대칭관계가 유사성에 의해 연결된다면, 과학자로서의 윤리를 둘러싸고 장범선과 천건미가 논리적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초원과 산이 마녀 공동체에 속한 인물로 동질적인 의미망을 형성하고 있다면, 장범선과 천건미 외에 외부인들이 거미줄처럼 촘촘한 관계망을 구축하고 있다. ‘외부’와 연결점이 없이 고립되어 있던 마녀 공동체가 초원-장범선의 연결선, 산-송주의 연결선을 계기로 관계망을 확장해가는 양상을 띤다.

『마녀는』은 이를 통해 동질성이 아니라 이질성에 근거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구원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마녀’는 단순히 만신나루에 사는 무녀들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차이의 위계화에 따른 폭력에 저항하는 의미를 띤 것으로 확장된다. 마녀=야생을 구하기 위해 공모하는

천모란과 장범선이 대표적이다. 장범선을 돕기로 한 천모란이 “우리도/마녀가 될 거예요.”(2권 238)라며 두려움과 기대가 섞인 대사를 하는 것이나 장범선이 만신나루 마을에서 실험을 하다 끌려 나온 이후에도 실험을 이어가며 “하지만 울타리에 달려들어/기꺼이 부딪치는 것이야말로/실험실의 여자가/행할 수 있는/진정 불경하고/즐거운 일이다”(2권 341쪽)라고 말하는 등 불경한 마녀가 되어가는 일의 ‘즐거움’을 고백하는 부분이 대표적이다.

산을 도와 만신나루 공동체를 외부의 폭력에서 지켜내려 하는 송주의 경우에는 애초에 마녀의 표식이라고 할 수 있는 화상 흉터를 지닌 인물로 그려진다. 이십 년 만신나루에서 있었던 ‘마녀사냥’에 의도치 않은 피해를 입은 것인데, 송주 자신은 이를 과거의 상징이 아니라 자신을 증명하는 근거로 삼는다. 『마녀는』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그려지는 화상 흉터는 이들이 죽음의 위협을 받으며 가까스로 생존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식인데, 그것을 송주가 공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송주가 마녀들을 돕는 적극적인 협력자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이후 마녀 공동체 내부의 배타적 결속을 허물며 그것을 외부로 확장하는 계기가 된다. 송주뿐만 아니라 산에 의해 목숨을 건진 천건미가 2부 에필로그에서 화상 상처를 지닌 것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은 천건미 역시 마녀의 표지를 지니게 되었음을 암시한다.

특히 천건미의 경우 산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악역으로 등장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천건미가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 데 대한 서사를 부여하여 천건미의 복잡한 위치성이 드러나게 된다. 천건미는 장범선과 마찬가지로 승진에서 배제되기 쉬운 여성 과학자이자 첩의 소생이라는 개인사를 지닌 인물이기도 하다.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협박과 음모를 일삼던 천건미가 산의 희생 이후 ‘다른’ 삶을 살아갈 것을 암시하는 장면이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천건미의 복잡한 위치성을 서사적으로 구축해 놓았기 때문이다. 천건미뿐만 아니라 인물들의 위치성이 네트워크 안에서 다른 인물들과 맺는 관계에 따라 드러난다는 점은 흥미롭다. 식량 안보연구소 소장이 되기는 했지만, 자신이 “총알받이”일 뿐이라는 것을 아는 장범선은 “일 잘하는 것/말고는/별 거 없는/여자니까…”(2권 131쪽)라는 동료들의 뒷담화를 듣기도 한다. 연구 성과를 내서 인정 받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초원을 ‘이용’했다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면서, 한편으로는 초원이 남긴 동백의 양육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그녀는 송주가 일하는 언론사의 부장으로 나오는 유화영과 한때 연인 관계였던 레즈비언으로 그려진다.

이처럼 『마녀는』은 인물들이 맺는 관계를 교차하는 위치성을 바탕으로 촘촘하게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감정선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낸다. 거의 대부분의 등장인물이 여성이라는 점과 여성이 받는 차별을 제기하는 부분³⁸⁾ 등은 이 작품이 여성 서사로서 지닌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³⁹⁾ 이와 관련해 마녀가 지닌 신비한 능력 중 남자 없이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지니는 의미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여자아이들만 태어나게 한다는 점에서도 분리주의적 측면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아버지가 필요없다는 건/축복이야”(2권 203쪽)와 같이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은 가부장제에 대한 마녀들의 적대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이것이 자칫 ‘남성’ 자체를 적대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마녀사냥의 희생자 대부분이 여성이었지만 다수의 남성 역시 마녀로 몰려 희생되었다는 사실이나,⁴⁰⁾ 여성, 자연, 동물, 난민, 이주민, 장애인, 빈곤층 등 지금도 혐오와 박해를

38) 대표적인 것이 백신과 관련된 젠더차별에 대한 것이다. 여성에게 백신 부작용이 집중된 이유가 제약 회사들이 여성용 백신을 따로 만들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마녀는』은 “인류의 절반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 이 굴레가 끊기지 않는 것은 왜일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1권 238-239쪽.

39) 장범선-유화영과 더불어 산-초원의 관계 역시 레즈비언 서사로 읽힐 가능성도 있지만, 작품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그려내지는 않고 있다.

40) witch를 ‘마녀’라고 번역한 데서 관례적으로 여성 명사로 고착화되었지만, ‘마녀’의 어원을 살펴봐도

당하고 있는 소수자들과의 연대를 상상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5. 결론을 대신하여

『마녀는』의 인물들이 돌봄의 범위를 확장하며 주체-객체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환대⁴¹⁾의 공동체를 만들어냈기에 ‘모두’의 구원에 이를 수 있었다. 산이 마녀 공동체만을 지키기 위해 자신에게 강요된 희생을 받아들였다면 이러한 결말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다. 초원이 말한 “영원히 사는 꿈”은 인간과 비인간의 영역을 초월해 돌봄과 환대의 네트워크가 구축된 토대 위에서 마침내 실현 가능한 것이다.⁴²⁾ 특정한 집단이나 공동체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 돌봄의 토대 위에서 인간은 죽음이라는 근원적 취약성을 넘어설 수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범위를 생물학적 성별로 국한하는 것은 이러한 『마녀는』이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

다만 ‘아버지’ 없이 아이를 출산하는 마녀들의 신비한 능력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비생산적인 일로 가치 절하되어온 돌봄 노동의 재평가와 관련해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점은 짚어두고 싶다. “세상에는 산 것보다/살아남은 것들이 더 많아./그러니 우리는 서로를 돌봐야 해”(1권 62)라는 초원의 말은 인간의 존재 기반으로서의 돌봄의 가치를 재인식할 필요성을 일깨운다. 그런데 이는 인간에 한정되는 문제는 아니다. 마리아 미즈는 여성의 출산과 육아 활동의 가치를 재평가한다고 주장하면서 “여성 몸의 생산성을 동물의 번식과 동일시하는” 관점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⁴³⁾ 여성의 재생산노동은 ‘의식적’이라는 점에서 동물의 ‘생식’과 구분된다는 것인데, 이는 동물의 성과 생식을 인간의 것과 구분 지음으로써 동물에 대한 인간의 특권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생명정치적 주권 정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있다.⁴⁴⁾ 이런 점에서 마녀들이 ‘아버지’ 없이 잉태한다는 설정은 자본주의적 가부장제(‘아버지’)에서 벗어

이는 남자와 여자를 아우르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warlock(요술사)이라는 단어는 고대 영어 waer(진리)와 leogan(거짓말을 하다)에서 유래한 것으로, 1460년경 ‘마녀’와 같은 뜻이 되었으며 이 당시에 남녀 주술사/마법사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제프리 버튼 러셀, 『마녀의 문화사』, 김은주 역, 르네상스, 2012, 15-16쪽.

41) 여기서 환대는 데리다가 조건적 환대로서의 관용과 구분한 무조건적 환대에 가깝다. “내 영토의 법률과 규범들에 순응한다는 조건에서” 타자를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되지도 초대되지도 않은 모든 자에게, 절대적으로 낮은 방문자로서 도착한arriver 모든 자[일어난 모든 것]에게, 신원을 확인할 수 없고 예견할 수도 없는 도착자에게, 사전에 미리 개방”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데리다는 이러한 무조건적 환대가 “나를 타자로부터 보호해주는 면역을 제거할 경우 이는 죽음을 무릅쓰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것은 조작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명명하였다(G. 보라도리, 『테러 시대의 철학』, 손철성·김은주·김준성 옮김, 문학과지성사, 2004, 233-235쪽). 산이 자기 생명이 위태로워질 것을 알면서도 화재 현장에서 위험에 빠진 천진미와 시위대를 구해내는 장면은 이러한 무조건적 환대의 차원에 있다. 다만 데리다는 조건부 환대와 무조건적 환대가 이질적이면서 분리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양자 사이의 역동적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무조건적인 것을 조건들 속에 다시 기입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아닐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마녀는』에서는 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언론인인 송주와 과학자이자 행정가이기도 한 장범선이라고 할 수 있다.

42) 이현재는 해러웨이를 포스트휴먼적 관점에서 페미니스트 돌봄 윤리의 계보를 잇는 철학자로 정초하며, 이를 토대로 인간-비인간이 서로를 돌보는 “난잡한 돌봄 공동체”의 가능성을 주장한 바 있다. 『마녀는』이 ‘마녀’라는 인간과 야생의 경계를 흐트러뜨리는 존재를 매개로 하여 돌봄 행위자의 계보를 비인간 존재에까지 확장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지적은 특히 주목된다. 이현재, 앞의 글, 31쪽.

43) “여성의 출산과 육아 활동은 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런 활동을 단순한 생리 작용으로, 다른 포유류의 활동과 비슷한 것으로, 의식적인 인간의 영향력 밖에 놓인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여성의 해방, 여성의 인간화에 여전히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여성 몸의 생산성을 동물의 번식과 동일시하는 이런 관점은 지금도 인구학자와 인구계획가들이 전세계적으로 선전하면서 널리 보급되고 있다. 이런 관점은 가부장적이고 자본주의적인 노동분업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결과라고 이해해야 한다.” 마리아 미즈, 앞의 책, 138쪽.

44) 다네시 J. 와디웰, 앞의 책, 362-368쪽.

나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한다는 것의 의미를 새롭게 상상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마녀들이 같은 혈통을 잇는 성(姓)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은 이러한 맥락과 관련된다. 어머니 몸에서 태어나 자신이 어머니가 되고 죽어서는 어머니-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영원한 순환 관계 속에서 마녀=자연으로서의 연결이 재확인된다. 『마녀는』은 소유나 재산으로 통제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여성=자연에 대한 폭력적 인식에서 벗어나 그 신비한 힘을 이 세계에 다시 도래시키려 한 것이다.

『마녀는』은 자본주의 시초축적 과정에서 박해 대상이 되었던 마녀의 형상을 바탕으로 삼아 이들에게 주술의 힘을 부여함으로써 야생의 의미를 덧붙이고 있다. 이 신비한 힘을 지닌 여자들은 그 힘 때문에 사회에서 배척당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음모에 휘말려 일종의 ‘멸종’ 상황에까지 놓이게 된다. 그런데 『마녀는』은 동질성이 아니라 이질성에 기반한 네트워크의 확장을 통해 근대 패러다임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다. 초원과 산이 서로에 대한 지극한 애정을 마침내 그 바깥으로 향하게 하는 장면은 몹시 감동적이다. 혐오와 미움이 아니라 돌봄과 환대야말로 구원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인물들 간의 두터운 네트워크 속에서 구체화된다. 신인클로저라고 부를 만한 공유지 파괴 행위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기후 위기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⁴⁵⁾ 종, 인종, 젠더, 능력 또는 다른 배경에 근거하여 인구들 사이를 분할하는 생명정치적 주권 정치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개인의 윤리에 기대는 것 이상의 변화가 필요하다. 『마녀는』은 공유재, 멸종, 생명 정치적 주권의 문제 등을 아우르며 우리가 이러한 세계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깊이 고민하게 해 준다.

45) 페데리치는 “여성에 대한 폭력, 특히 아프리카계 아메리카인과 아메리카 선주민 여성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는 이유는, 자본이 이 세계의 자연자원과 인간노동에 대한 압도적인 통제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재식민화 과정이 ‘지구화’이며, 지구화는 자기 공동체의 재생산을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여성들을 공격하지 않고는 달성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라면서 지구화의 문제를 재식민화와 관련짓는다. 실비아 페데리치, 『우리는 당신들이 불태우지 못한 마녀의 후손들이다』, 신지영·김정연·김예나·문현 옮김, 갈무리, 2023, 97쪽.